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 2024 KBS 방송지표

KBS사보

2024년 3월 8일 금요일
Vol. 761



공사 창립 51주년, ‘KBS 미래 3대 비전’ 발표

KBS는 공사 창립 51주년을 맞아, 공사를 3개의 중심축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KBS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박 민 사장은 3월 4일 열린 〈공사 창립 51주년 기념식〉에서 “지금은 KBS의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KBS의 새로운 50년을 책임질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박 사장은 앞으로 KBS는 ▲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문, ▲ 고품격 제작스튜디오 (가칭)콘텐츠 K, ▲ 복합방송문화공간 (가칭)K 스튜디오 등 3개의 중심축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의 KBS는 이 3개 부문이 합쳐진 종합 공영미디어그룹으로 재탄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상반기 내에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분리고지의 본격 시행을 앞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청자를 위한 책무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청객 편의를 위한 모바일 티켓 발권과 9월을 목표로 한 견학홀 리모델링, KBS 콘텐츠 개방 확대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박 민 사장은 “직원들의 역량과 열정, 잠재력을 일깨우고 KBS가 축적한 유무형 자산을 총동원한다면, KBS가 과거의 영광을 넘어 세계적인 공영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실시

공사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수신료 본격 분리고지를 앞둔 최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29일 총 87명 규모의 ‘2024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특별명예퇴직은 73명, 희망퇴직은 14명이 신청했으며, 직종별로는 ▲ PD 21명 ▲ 기자 14명 ▲ 방송기술 15명 ▲ 방송경영 16명 ▲ 아나운서 7명 ▲ IT 3명 ▲ 영상제작 3명 ▲ 촬영기자 2명 ▲ 디자인 2명 ▲ 방송음악직 2명 ▲ 음향디자인 1명 ▲ 전문기술 1명이다. 이들은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 최종 확정됐다.

특별명예퇴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직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직원이 대상으로,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기본급 45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받는다. 희망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직원이 대상이며 최대 기본급 6개월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특별명예퇴직은 최대 1억 원, 희망퇴직은 3,000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한편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위로금의 주요 재원은 집행기관과 국·부장들의 임금반납분 등으로 충당되었다.

“앵커 교체·프로그램 편성은 사측의 정당한 권리” 인정

공사의 편성권과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2월 15일, KBS본부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노조는 뉴스 프로그램 앵커 교체와 〈더라이브〉·〈주진우 라이브〉 등 프로그램의 편성 삭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처분,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공사는 ▲ 앵커 교체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며, ▲〈더라이브〉 등 프로그램의 편성 변경은 방송법이 정한 정당한 편성권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서울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통해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앞서 1월 22일 서울남부지법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KBS본부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공사의 방송 편성에 대한 폭넓은 자유와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발령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3면에 계속]

박 민 사장 기념사 요약



1 새로운 50년의 준비, 그 첫 100여 일의 성과

- 국고보조금, 2TV 재허가 문제 해소
- 프로그램 공정성과 경쟁력 회복
- 인력 효율화 및 사규와 원칙에 따른 운영 강화

KBS 전방위 혁신을 추진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응해 주신 덕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액 삭감됐던 국고보조금은 10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차례 조건부 재허가로 우려가 제기됐던 2TV는 2027년까지 4년간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는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전과의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KBS 프로그램들은 공정성과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는 '저널리즘 7대 강령'의 실천을 통해 공정성과 영향력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뉴스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문에서 〈고려거란전쟁〉이 최근 전국 가구 기준 12.9%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드라마 1위에 올랐습니다. 예능 분야에서는 설 특집 대형 콘서트 〈진성빅쇼〉도 성황리에 마쳤고, 〈골든걸스〉도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2위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종영했습니다.

지난달,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시행했고, 한시직 근로자도 기존 640여 명에서 350여 명으로 40% 이상 감축했습니다.

2 KBS의 3대 미래 비전

가까운 미래의 KBS는 공정과 신뢰의 '공영방송 KBS', 고품격 제작스튜디오 (가칭)'콘텐츠 K', 복합방송문화공간 (가칭)'K 스튜디오'라는 세 개의 중심축으로 환골탈태할 것입니다.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수행 – ① 공영방송 KBS

첫째, 공영방송 KBS는 보도와 시사교양, 국제방송, 시청자센터 등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수신료 기반의 운영이 이뤄질 것이고 수신료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품격 제작스튜디오 구축 – ② (가칭)'콘텐츠 K'

두 번째는 KBS의 제작 역량을 총결집한 콘텐츠 제작 부문 (가칭)'콘텐츠 K'입니다. 영국 'BBC 스튜디오'와 같은 고품격 제작스튜디오를 통해 드라마와 예능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 담당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K-콘텐츠 복합방송문화공간으로의 도약 – ③ (가칭)'K 스튜디오'

마지막 세 번째는 K-팝, K-콘텐츠의 중심이 되는 복합방송문화공간, (가칭)'K 스튜디오'입니다. K-팝부터 드라마, 푸드, 뷰티까지 문화 전 분야를 포괄해 전시와 공연 관람,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칭 'K 스튜디오'의 청사진은 앞으로 만들어질 '미래비전추진단'이 그려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KBS는 3개 부문이 합쳐진 종합 공영미디어 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시청자 중심 KBS

KBS의 미래는 시청자와 국민의 신뢰와 지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청자를 위한 책무의 이행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역량과 열정, 잠재력을 일깨우고 KBS가 축적한 유무형 자산을 총동원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공영미디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직원 여러분들이 KBS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닐 수 있도록 저와 집행부도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국방송 사장 박 민

이사장 기념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합시다



이사장 **서기석**

먼저 공영방송 51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이사장실에서 일본 NHK 이노우에 타츠히코 부회장님을 만나 대담을 나누던 중 당시 양국의 최대 관심사였던 수신료 징수 문제에 대해 NHK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노우에 부회장님은 "공영성을 지키고 고품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쩌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냐고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KBS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사태를 맞아 올해 1천 4백억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편파방송 논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이라는 토대가 무너지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신료를 내고 싶어할 만큼의 고품질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인력,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개월여간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KBS 구성원들의 역량과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간부들이 급여를 반납하면서 솔선수범했고 평직원들도 연차 소진 등 사실상의 임금 삭감에 동참했습니다. 적잖은 직원들이 수신료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고품질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반세기 이어온 우리 KBS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언론사, 세계 제일의 언론사로 발전합시다. 공영방송 51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우리 KBS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청자가 주인”… 시청자 편의 증진 서비스 대폭 확대

KBS는 TV수신료 분리고지의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광고 수입 축소 등 최악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제작비 절감에도 견학홀 리모델링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시청자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KBS가 추진중인 ‘시청자 편의 증진 서비스’

- 신관 TV공개홀 방청 서비스 전면 개편
- 견학홀 리모델링으로 노후 시설 개선
- 시청자청원 제도 개선
- 공공 아카이브 〈KBS 바다〉 서비스 확대
- 지역 시청자 서비스 강화



1. 장시간 야외 대기 ‘NO’… 방청 서비스 전면 개편



도입된 새 제도는 ▲ 모바일 티켓 및 온라인 사전 입장 번호 부여 ▲ 실내 대기 장소 마련 ▲ 예비 당첨 제도이다. 지정석은 KBS+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티켓을 받아 입장할 수 있다. 자유석은 온라인 사전 번호를 받아 입장할 수 있다. 미리 도착해 티켓을 교환하는 불편과 야외 줄서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기를 하더라도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 있다.

2. 견학홀 리모델링에 9억여 원 투자…16년 만에 재탄생

KBS 견학홀이 16년 만에 재탄생한다.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며 리모델링 비용은 9억여 원이 들어간다. 46년 동안 방송 체험공간의 역할을 했지만 시설 노후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오는 9월 재개장할 예정이다.

3. 시청자청원 제도 개선

공익과 관련된 중요 내용일 경우 ‘1,000명 동의’를 받지 못해도 관련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시청자청원 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최근 ‘공개방송 방청 대기 불만’, ‘일본 지진 해일 관련 독도 표기’ 청원 등이 접수된 즉시 제작진이 답변하고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4. 공공 아카이브 〈KBS 바다〉 서비스 확대

국민 누구나 자료(영상, 이미지 등)를 무료로 제공받는 개방형 공공 아카이브 서비스 〈KBS 바다〉가 콘텐츠를 추가 개방한다. 동물과 자연 풍경, 사회경제 관련 주제가 추가 개방 대상에 포함되며 고속·미속·항공촬영을 비롯한 특수촬영본이 HD급 고화질로 제공된다.

5. 지역 시청자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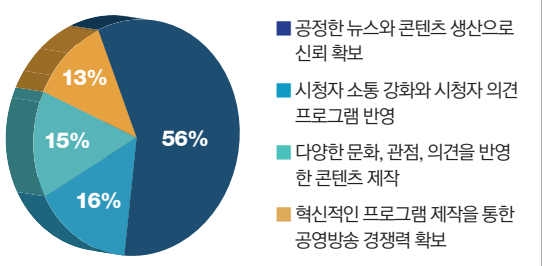
KBS 지역국과 연계한 지역 시청자 서비스도 강화된다. 지역 순회 음악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단체나 대학 등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청자가 바라는 KBS는?

KBS는 지난 1월 시청자를 상대로 ‘2024 KBS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달 동안 KBS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 조사에 모두 23,861명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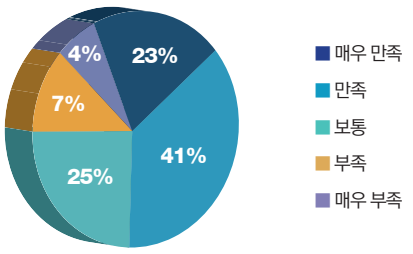
‘공정한 뉴스·콘텐츠 생산’으로 신뢰 확보

방송지표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KBS의 올해 방송지표인 ‘공정과 혁신으로 새로운 KBS’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다. 56%가 “공정한 뉴스와 콘텐츠 생산으로 신뢰 확보”를 꼽았다.

KBS 프로그램·서비스 만족도



KBS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64%가 만족한다, 11%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40~60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즐겨 보는 프로그램 1위 〈불후의 명곡〉… “대형 빅쇼 제작해야”

현재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은 〈불후의 명곡〉, 〈고려거란전쟁〉, 〈인간극장〉의 순으로 꼽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불후의 명곡〉은 50대 이상이 72%를 차지했고 〈고려거란전쟁〉은 30~40대가 52%를 차지했다.

앞으로 KBS가 제작해 주길 원하는 프로그램은 〈대형 빅쇼〉, 〈대하 사극〉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형 빅쇼〉에 출연해 주길 바라는 가수로는 1위 조용필, 2위 BTS와 김호중, 3위 블랙핑크로 조사되었다.

‘편성권·인사권’이 쟁점… 진행 경과는?

지난해 11월 박 민 사장 취임 이후 노조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 등의 경과를 정리했다.

기관	제기 일자	내용	경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11.21.	방송법 위반 고발	진행중
서울남부지방법원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2024.1.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2024.2.15.)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특별근로감독 청원	불수리(2024.2.13.)
감사원	2023.12.8.	국민감사 청구	진행중

1. 쟁점

주요 쟁점은 ▲ 국장 임명동의제 ▲ 프로그램 편성 변경 ▲ 프로그램 진행자 및 뉴스 앵커 교체 등으로, 노조는 공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2. 경과

그러나 법원과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은 임명 동의 절차 없는 주요 간부 임명이나 프로그램 편성 변경, 진행자 교체 등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은 노조의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불수리했다. 나머지 두 건은 진행 중이다.

3. 의미

이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기관에서 공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며, 프로그램 편성권 및 인사권에 기초한 편성 변경과 인사발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품격 콘텐츠로 승부! 새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공사 창립 대기획



3월 7일 방송된 1부 '숨겨진 세계'는 방송 최초로 살아 움직이는 빙하의 소리를 담았으며, 14일 방송될 2부 '얼음의 아이들'에서는 빙하의 탄생과 빙하가 지구 생명 진화에 미친 영향을, 21일 방송될 3부 '1℃의 미래'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의 변화와 저항을 담았다. 내레이션은 〈고려거란전쟁〉에서 양규 역으로 활약한 배우 지승현이 맡았다.

새 주말드라마



3월 23일 첫 방송 예정인 〈미녀와 순정남〉은 톱배우 박도라(임수향 분)와 초보 드라마PD 고필승(지현우 분)이 사랑의 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내용의 주말드라마다.

〈신사와 아가씨〉의 김사경 작가가 시청률 49.4%을 기록했던 〈하나뿐인 내편〉의 홍석구 감독과 두 번째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KBS 프리미어



KBS의 초대형 특집쇼 〈김호중 더 심포니〉가 오는 3월 16일 KBS 2TV를 통해 방송된다. 트로트부터 크로스오버와 성악 장르까지 섭렵하며 대중가요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국민 가수 '김호중'과 국내 최고의 교향악단인 'KBS교향악단'의 클래식 협연 무대를 통해, 김호중은 꿈을 꾸는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뮤직뱅크〉 월드투어… 4월 벨기에 공연

KBS 〈뮤직뱅크〉가 4월 20일 벨기에 월드투어를 확정했다. 벨기에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스포츠팰리스(Sportpaleis)'에서 열릴 4월 공연에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여자)아이들, 제로베이스원 등 K-Pop을 대표하는 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객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팰리스'는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와 U2, 브루노 마스 등이 공연한 장소로도 유명하며, 벨기에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와 접근성이 좋아 유럽의 K-Pop 팬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KBS 뮤직뱅크 월드투어'는 4월 공연에 이어 10월 스페인에서의 공연을 통해 K-Pop 전파의 선봉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갈 계획이다.

축하합니다! 〈6시 내고향〉 8천 회



8천 번째 고향길, 당신과 함께

KBS1TV 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이 3월 15일 8,000회를 맞아, 3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전국을 도는 릴레이 공개방송 〈8,000번째 고향길, 당신과 함께〉를 진행한다. 지난 33년 동안 매일 저녁 어김없이 시청자를 찾아간 〈6시 내고향〉은 이번 특집을 통해 그동안 만났던 출연자들을 다시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고향'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50여 명의 MC와 300여 명의 리포터

1991년 5월 20일 첫 방송 당시 초대 MC였던 박용호, 이금희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무려 50여 명의 KBS 아나운서들이 MC로서 시청자들을 만났다. 또 100여 명의 전문 리포터와 200여 명의 가수, 배우, 국악인, 개그맨 등이 전국 각지를 누비며 흥겨운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했다. 이들은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힘을 전했다. 〈6시 내고향〉은 기쁜 일, 슬픈 일에도 항상 시청자 곁을 지켰다.

5일간 전국을 잇는 릴레이 중계차 특집 생방송

이번 8,000회 특집은 월요일엔 경상도, 화요일-전라도, 수요일-충청도, 목요일-강원도, 금요일-수도권 등 닷새 동안 전국을 누빈다. 스튜디오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에 차려진다. 특히 '8,000회 특집 버스'를 제작해 지난 33년간 방송을 빛냈던 주인공들을 찾아간다. 손헌수, 이정용, 김정연, 송준근 등 인기 리포터와 역대 MC 등이 '일일 버스 안내원'으로 참여해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 계획이다.

KBS사보 www.kbs.co.kr
발행인 박 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문의 및 구독신청 02)781-2113, 2821 / kbssabo@kbs.co.kr
편집인 김덕원 취재 김나미 윤영란 김태두 김재은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